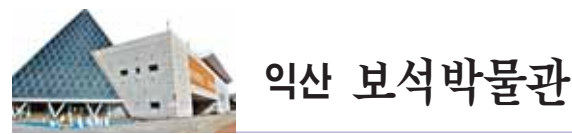


보석박물관 내 화석전시관



박물관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버려~



익산 보석박물관

고대~현대 세계 보석 발달사 한눈에
귀금속 치장 20억짜리 보석꽃 '백미'
순금 석탑과 사리장엄 화려함 자랑
화석전시관, 학생 체험 학습장 인기



시가 20억 '보석꽃'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개나리가 눈부시게 웃는다. 곳곳에 피어난 꽃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봄. 봄처럼 반짝이는 보석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진귀한 보석과 원석을 만날 수 있는 익산으로 가보자.

익산은 예로부터 보석가공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백제의 예술성 면면을 이어온 보석의 고장답게 이곳에는 보석박물관이 있다.

보석박물관은 2002년 5월 총 부지면적 141,990㎡ 규모의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에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215㎡ 규모의 보석 박물관에는 11만 8000여점의 희귀한 보석과 광물이 전시돼 사람들의 눈길을 뺏는다.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상설전시실이 들어섰다.

보석을 만나러 가는 길. 탄생석 전시대 앞에서 잠시 사람들의 발길이 멈춘다. 월별로 전시된 탄생석의 원석과 가공품 앞에서 자신의 보석을 찾아 사람들의 눈길이 분주하다. 보석을 들여다보는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돈다.

이제부터 각각각색 보석들의 향연이다. 마법사가 된 듯 커다란 백수정 구슬을 어루만져 보고 눈부신 자태를 뽐내는 보석을 찾아 걸음을 옮긴다.

돌맹이가 보석으로 재탄생하는 과정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보석 광산의 갱을 재연한 동굴이 마치 터널에서 채굴모습, 채굴장비, 수직갱, 수평갱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채굴방법에 대한 영상물도 상영된다. 동굴 터널을 지나면 보석의 선별과정에서부터 보석으로 가공되기까지의 과정이 실물크기의 디오라마(실제와 가깝게 설치한 모형)로 현장감 있게 재현되어 있다.

보석하면 화려함이다. 그 화려함에 감탄사가 쏟아지는 장소들도 있다.

아트 갤러리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20분의 1로 축소된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크리스탈과 아클리리 기와를 얹었고 금도장으로 칩탑을 세웠다. 목화석, 계열석 등 10만 여점의 보석으로 제작된 조선시대 오봉산일월도 벽화도 눈길을 끈다.

독일의 보석 세공명장인 만프레드 빌트씨의 손길로 완성된 '보석꽃'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2년여의 시간 2600여개의 천연보석을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완성한 명품이다. 34cm 높이의 18K 금으로 세워진 꽃술대위에 213개의 다이아몬드와 수정으로 꾸며진 꽃과 꽃술 그리고 금 잎사귀가 살포시 내려앉아있다.

미륵사지 석탑으로 변신한 순금도 전시관을 환

히 밝힌다. 2060톤(7725g)의 순금이 가로·세로 46cm 높이 43cm의 미륵사지 석탑 모형으로 재탄생했다. 373톤(1792g)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사리장엄도 화려하다.

기획 전시실에서도 다양한 보석을 만날 수 있다. 유럽 왕실의 보석 모형과 대형 황수정, 자수정, 백수정 원석과 함께 각종 기획 전시전이 열린다.

주말에는 체험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3~11월 까지 매주 토·일요일 보석박물관 피라미드 동 체험장에서는 나만의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체험교실이 열린다. 재료비를 부담하면 자신만의 장신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박물관 앞에는 2010년 개관한 귀금속보석 전시관매센터 '주얼갤러리'가 있다. 다양한 보석 제품을 구매하고 수리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입주해 있다. 9일부터 20일까지 이곳에서 보석대축제가 열린다. 20% 할인 행사와 특별전시, 가공시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여심을 흐드는 보석 구경이 끝났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화석 전시관으로 이동해보자. 연면적 932㎡ 규모의 화석전시관에는 시대별 화석 및 공룡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시관 앞에는 너른 잔디밭이 있어 봄날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커다란 공룡 모형들 앞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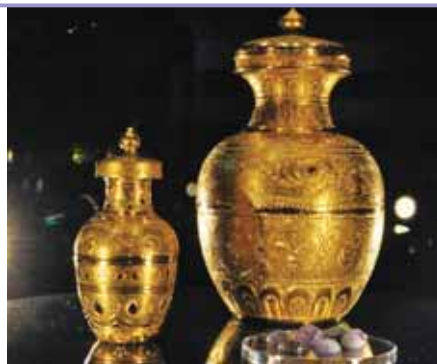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매표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과 1월1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며 신분증을 소지한 익산시민들에게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3-859-4641~3, <https://www.jewelmuseum.go.kr>)

박물관 근처에 고즈넉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있다. 늘 푸른수목원내에 위치한 왕궁대원은 고운 꽃단지와 은은한 차 그리고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하지 않아도 괜찮다. 꽃단지를 따라 길을 걷고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도 부담이 없는 길이다.

분향은 허기와 건강을 채우기에 좋은 마요리 전문점이다. 익산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백제 무왕의 어렸을 때 이름은 장이다. 마를 캐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동(蕙童)이라고도 불렀다. 옛이야기가 담긴 마항기 그득한 메뉴를 접할 수 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순금 사리장엄



오미자차·마스테이크·마약밥(왼쪽부터) 등 박물관 인근 별미.



광주 1등 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은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